

## 신임 청년분과위원장, 이명환 현감사 만장일치 추대

- ▶ 한·미 FTA 타결 무효 및 한·EU FTA 저지 투쟁 적극 동참
- ▶ 학교우유급식 가공유 포함 반대 및 대책마련 주문
- ▶ '낙농지킴이' 청년분과위원회 조직활성화 재차 결의

일 장소 :



취임인사를 하고 있는 신임  
이명환 청년분과위원장



위원회 조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재차 결의하였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에 가공유 등 공급품목 다양화에 대해 교육적인 목적의 학교우유급식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전체 우유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05년 가공유 논란과 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협회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우유 끼워팔기, 사료값 인상 문제, 원유생산비 조서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협회에 요청하였다.

한 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10월 19일(금)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3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김태섭 위원장 후임으로 이명환 현(現) 청년분과 감사(경남 사천)를 신임 청년분과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는 한편, 낙농현안 공유 및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11.11 농민대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전개될 한·미FTA 타결 무효 및 한·EU FTA 저지 투쟁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으며, 낙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낙농지킴이로서의 청년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청년분과

한편 신임 이명환 청년분과위원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낙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분과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낀다며, 낙농현안 해결을 위해 협회를 적극 도와 청년분과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고, 청년분과위원회 조직활성화를 위해 임원진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